



은혜로 QT

7월 13일.화요일.

묵상말씀. 전도서 11장 6절.

6.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묵상제목. '주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자가 어떻게 현실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얘기하면서 막연한 희망과 바람을 늘어놓으며 판단을 흐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면서 어떻게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겸손을 갖추는 것이 참 지혜임을 말합니다. 물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이 결코 삶의 의미를 축소하고 의심하고 회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을 확보하면서 내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신앙적인 삶의 방식이 결국에는 가장 실용적인 결과와 구체적인 효과가 있음을 깨우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침저녁으로 씨를 뿌리는 것까지입니다. 이후의 결과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몫은 오늘을 열심을 다해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걷게 하신 후 정금같이 나오게 하심을 확신하시면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을 위한 찬양.

오늘은 찬양곡,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과 함께 은혜로 묵상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고백합니다.